

“전남 첨단소재 국가산단 생산유발효과 3조5천억”

광양만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부가가치 1조2천억·고용 1만4천명
미래산업 전략 거점 타당성 확인
정부 지정 건의 등 후속 절차 추진

전라남도가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낸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로봇(AI), 바이오, 수소차,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할 국가 전략거점으로서 필요성과 경제성, 타당성을 확인했다.

이번 용역 결과 산업단지 조성 시 약 3조517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조2684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41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순현재가치는 1025억 원, 내부수익률(IRR)은 4.88%, 비용편익비율(B/C)은

1.055로 국가사업으로서 추진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순천 해룡면과 광양읍 일원 약 396만㎡ 부지에 들어서면, 지형이 평탄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근 광양만권 산업벨트와 석유화학·철강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면, 기존 세풍·울촌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은 총 117개 사다. 유치 업종은 이차전지, 금속가공, 전기·기계·운송장비 등 67개 품목에 달하며, 특수합금·금속복합소재 및 연구시설 등도 포함된 만큼 첨단산업 집적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 건의, 국비 확보, 민간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산업 인프라를 넘어 전남의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기술 전략화를 이끄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남형 국가산단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65억 투입 산불 예방 숲가꾸기 추진

전라남도는 지난달 29일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해 곡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현장에서 소토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림 내 연료를 줄이는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역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수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솜아베기를 실시해 산불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화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22개 시군 숲가꾸기 담당자들과 함께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및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올해 총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1724ha 규모의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사업 내실화를 위해 현장토론회, 실무교육, 사전 설계 심의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재일동포 기업 ‘투자환경 설명회’ 성료

AI지구·미래차산단 인프라 소개
유망 기업 신규 투자 협력 논의

광주광역시시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5 광주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2025년 제1회 경영세미나’와 연계해 열렸으며, 한일전기그룹, 대한합성화학공업, 아비코전자 등 협회 소속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는 재일동포 기업인들이 1974년 설립한 단체로 국내 투자 촉진과 한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제주은행, OK금융그룹 등 68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광주시는 이들을 상대로 광주의 전략산

업과 우수한 투자환경을 소개, 유망기업의 신규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나섰다.

설명회는 광주시 도시홍보영상 상영, 투자환경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킹 등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융복합지구, 미래차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과 투자 인센티브,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특히 AI 생태계, 미래차산업 역량, 국가AI데이터센터 및 팹리스 반도체 기업 유치 성과 등 광주의 핵심 경쟁력을 중점 홍보했다.

광주시는 설명회 참석 기업 중 투자에 관심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 MOU 체결 등 후속 투자유치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성아 기자

‘광주-대구 폭염대응 달빛포럼’ 개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등 참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지난달 29일 대구정책연구원, 광주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과 함께 ‘폭염위기사회, 도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광주-대구 폭염대응 달빛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포럼은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는 두 광역도시가 함께 협력하여 도시 폭염 관련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폭염 관련 국가 적응정책·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폭염대응·기후회복을 위한 광역도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회성(제6대 IPCC 의장)의 기조강연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시작으로 △2025년 여름철 전망,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책 △폭염 상황관리 종합정보시스템, △폭염대응 시설 성능·효율 확보 방안 등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후반부에는 ‘폭염대응 및 기후회복을 위한 광역도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창훈(전 한국환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조선대,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 연세대, 한국외대의 전문패널이 함께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고상연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폭염대응 달빛포럼을 통해 광주와 대구는 폭염대응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광역도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양 도시의 축적된 기상데이터와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도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성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민주원으로 초청한마당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위더스광주에서 열린 ‘제15회 민주원으로 초청 한마당’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단독주택 121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

4억원 투입 1~3kW 설비 보급
월 전기료 6만~8만원 절감 기대

광주광역시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가용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6월2일부터 7월18일까지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121가구 이상에 1~3k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비는 참여자가 33.3%를 부담하

고, 나머지 66.7%는 광주시가 지원한다.

태양광 3kW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시간을 발전할 때 월 평균 300~4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월 6만~8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약 2년 이내에 자기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363kW(3kW×121개소)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47만7000kWh의 전력을 생산, 약 217tCO₂ eq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5년생 소나무 2만2000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태양광 설비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가

선정한 10개 태양광 전문기업 중 1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문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설치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광주시 자가용태양광 지원사업참여신청자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참여기업에 문의하면 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시, 하반기 청년 일경험 ‘드림터’ 추진

오는 17일까지 참여사업장 공모
최대 5개월간 인건비 90% 지원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청년들에게 직무현장 일경험을 제공하는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에 참여할 ‘드림터(사업장)’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은 지역 청년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고,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직무교육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광주시 대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시행, 지금까지 5000여개 사업장과 7600여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드림터’ 모집 대상은 광주지역과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청년에게 단순 보조 직무가 아닌, 기업 특성을 반영한 질 좋은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인증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18기 드림터’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광주시로부터 참여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받아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를 돕고, 현장 적응능력을 갖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연계 채용 인센티브’ 혜택도 새롭게 도입됐다. 일경험 종료 후

‘드림청년(참여 청년)’을 1년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드림터(사업장)는 17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드림터 모집과 관련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일경험드림사업단)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일경험드림은 지역 기업이 청년 인재를 직접 육성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유망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일경험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